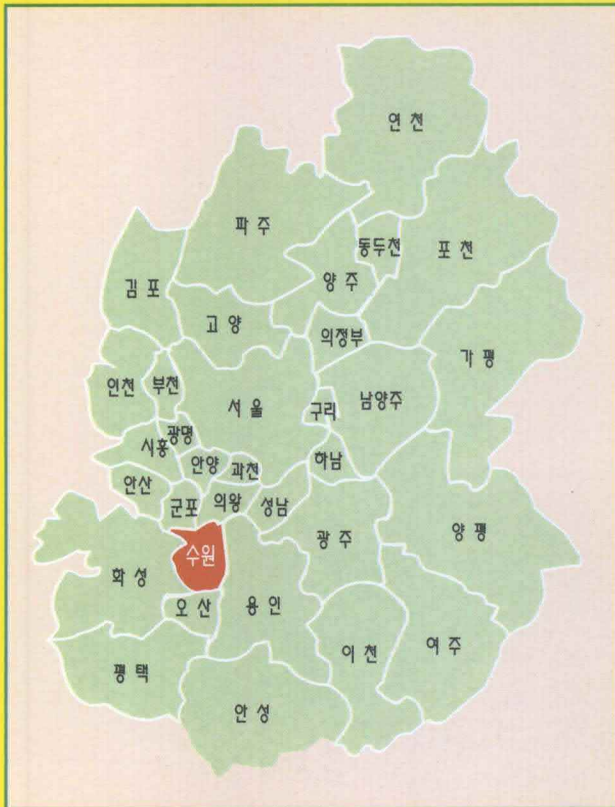


수원시

길마재 즐다리기

장치기



길마재 줄다리기

1. 전승지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길마재(하동), 용인시 수지면 상현리 독바위, 일대

2. 유래 및 해설

지금으로부터 약 250여년전 수원시 이의

동 길마재(하동)와 용인군 수지면 상현리 독바위 일대 마을에 각종 전염병이 돌아 목숨을 잃는 주민이 부지기수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돌림병의 정체에도 몰랐고 설사 알았다 해도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라 속수무책 발만 구르고 있었다.

돌림병의 공포속에서 떨기만 하던 어느날 주민 장진종(張鎭宗)이라는 사람의 꿈에 아버지가 나타났다. 진종의 부친은 조선조의



문관으로써 대홍군수, 영릉참봉, 영월부사를 지낸 바 있는 진천 장씨(張氏)의 27세손 장이강(張以綱).

부친은 현몽하여 9척 장신에 선유화를 쓴 신선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진종(鎭宗)에게 이르기를 「너를 중심으로 묘 아래 주민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힘을 합하여 정월 상달 첫 밤에 줄다리를 하라. 그리하면 신의 도우심을 얻어 모든 주민이 무사할 뿐 아니라 매년 풍년이 들어 만사 대통하리라」 하였다.

이 소문은 이 마을 뿐아니라 인근 부락에까지 퍼졌고 이 모든 부락 주민들이 힘을 합하여 장이강 묘소(장대홍 묘 또는 장장묘)앞에서 줄다리를 하였다. 그날 이후 신기하게도 돌림병은 없어지고 매년 풍작이 들어 주민들의 생활이 날로 안락해졌다 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매년 줄다리를 해왔고 해방후 한때 경제적인 사정으로 중단되었

다가 오늘날은 3년에 한번씩 행해지고 있다. 현재 묘소는 설치하지 말라하는 지관들의 말에 따라 비석과 제전이 없으며 줄다리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 잔디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 이곳에는 현재 그의 7대손자인 장태익(張台翼)씨를 비롯 대익(大翼), 형기(亨基), 지완(志完), 우형(愚亨)씨 등이 이 마을에 거주하며 묘소를 돌보고 있다.

3. 구 성

1) 입 장

동군과 서군이 줄을 들고 양쪽끝(동, 서)에서 지신밟기를 하며 장대홍 선생의 묘역 활개로 올라가 한바퀴 돌며 모인다.



2) 농악놀이

각지에서 모인 농악패들이 하나가 되어 줄다리를 축하하는 흥겨운 농악판을 벌인다.

3) 수줄넘기

농악이 벌어지는 동안 여인들이 수줄을 넘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말을 믿고 수줄을 넘으려 한다.

이때 남자들은 여인이 줄을 넘으면 마을에 불길한 일과 줄이 끊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이를 말린다.

(결국 여인들은 줄을 넘지 못한다.)

4) 고 사

농악놀이와 수줄넘기가 끝나면 장대홍 선생의 묘앞에서 오늘의 이 행사가 무사히 끝나고 액을 물리칠 수 있도록 고사를 드린다.

5) 합 궁

줄을 들어 올린후 암줄과 수줄이 서로 마주보며 서너차례의 얽힘과 떨어짐을 반복한 뒤 (성을 묘사) 줄을 맞댄후 비너목을 쫓는다.

6) 줄다리기

줄을 수줄과 암줄로 나누어서 동쪽수줄에는 남자가 서쪽암줄에는 부녀자, 미혼남자, 아이들이 참여하여 줄다리를 한다.(최초에는 동쪽이 수줄 서쪽이 암줄, 두번째는 동쪽이 암줄 서쪽이 수줄, 세번째는 동쪽이 수줄 서쪽이 암줄)

양쪽줄의 용두에는 편장이 올라타고 지휘를 하는데 암줄편장에는 여장을 한 남자가 탄다.

줄다리기는 세번을 한뒤 두번이 이긴쪽을

승리로 한다.

줄다리가 한번씩 끝난후에는 반드시 장대홍 선생의 묘 활개위로 올라가 줄의 방향을 바꾼다.

최종에는 항상 암줄편이 이기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

이는 암줄편이 이겨야 풍년이 들고 액이 사라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7) 민 요

줄다리가 끝난후에는 각지에서 모인 명창들이 모여 민요를 부르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한다.

8) 신목들이기

줄다리가 끝난후 마을 어귀에 있는 신목에다 줄을 감아들인다. 한해동안에 마을의 액을 물리친다고 굳게 믿고 있다.

9) 뒤풀이

전 주민이 모여 흥겨운 한마당을 펼친다.

민속놀이

장 치 기

1. 전승지

수원시 일대

2. 유래 및 해설

1) 유래

장치기는 요즈음의 '필드하키'와 흡사한

경기로서 삼국시대부터 행해진 격구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에 의하면 태조 원년에 '상주의 아자개가 사자를 보내어 귀순할 뜻을 전하니 왕이 명하여 그를 맞는 의식을 구정(격구 놀이 마당)에서 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서 이미 그 이전부터인 통일신라 시대나 삼국 시대부터 격구는 널리 유행되었던 것 같다.

격구는 말을 타고하는 마상 격구와 지금의



장치기인 도보 격구가 있었다. 그러나 상류 사회에서 격구를 하는데 사치와 호화를 지나치게 부려서 고려말에는 금지되기도 했으나, 조선조에 다시 성행하게 되었으며, 세종때에는 무관을 등용할 때의 시험 과목으로 채택하였으며 채점 방식과 경기 방식이 정해지기도 하였고, 정조시대에는 다시 중단되었으나 이 격구는 민속놀이로 계속 전승되었다.

이러한 양반 사회의 격구가 민속화되면서 '장치기', '어레공 치기', '짱치기' 등의 명칭으로 전국에서 성행하였다. 이 장치기는 단순한 승부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체력 단련과 마을 주민의 화합을 위한 목적으로 마을간 또는 동부 서부로 몇 개의 마을을 나누어 경기가 계속되었으며, 이기는 마을에 풍년이 든다는 무속(巫俗)적 의미를 지니기도 하였다.

일제 시대에는 일본의 문화 말살 정책으로 장치기는 거의 중단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 아이들이 겨울철 유희로 나타나는 정도였다.

2) 해 설

일제 시대인 1931년 2월 5일 수원(水源郡) 청소년동맹 주최로 전국 얼레공 대회가 민족 봉기와 대동 단결의 공동체 결성을 목적으로 양감면 용소리 냇가에서 전국의 32개 팀이 참가하여 열렸다. 이날 경기에 참가한 사람과 구경을 온 사람이 수 천명으로 너무 많아 장소를 이웃의 서탄면 황구지리로 옮겨 경기를 하였다고 한다.

이 때의 경기 주제가 '우리 경기(京畿)부흥(復興)의 봉화 - 얼레공대회'였다.

이렇듯 수원은 전국 최초의 장치기 대회를 개최하여 민족적인 단결을 유도한 곳으로, 이 장치기를 함으로써 경기중은 물론 뒷풀이 때 생겨나는 공동체 의식으로 내 나라 찾기

운동을 확산시킨 애국 운동의 발상지였다.

이제는 전통 민속놀이 장치기를 청소년들의 놀이로 정착시키는 활발한 운동을 우리 수원부터 벌여야 할때이다.

3. 구성 및 줄거리

1) 줄거리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기가 농악에 맞추어 경기장의 중앙에 나와서 공을 놓으면 양편에 2명씩의 격군이 대기하고 있다가 뛰어들어와 공을 다투며 경기가 시작된다.

경기는 서로 자기편의 골문에 공을 넣으면 한 골을 얻게되고, 촌장은 공을 가운데 놓고 경기를 속행한다.

• 들러공

격군이 공을 땅에 놓은 후 몸을 한바퀴 돌려 공을 치는데 이때는 상대방의 격군은 3보 이내에 있을 수 없다.

• 굴러공

공이 선 밖에 나가면 공을 굴려서 안으로 집어 넣는다.

• 채넘기

격군이 장채의 끝 지면에서 10cm쯤 되는 곳을 양손으로 잡고 그 밑으로 몸을 돌려 일어나는 것으로 장채 넘기를 많이 한 팀이 승리한다.

정해진 시간에 승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채넘기로 승부를 결정하거나, 기싸움으로 승부를 결정한다.

2) 연회 순서

(1) 길놀이(입장)

청룡군과 백호군의 연희대 일동은 대기(구

기)를 앞세우고 농악, 동기(마을기), 장채꾼, 주민의 순으로 흥겹게 춤을 추면서 경기장으로 들어온다.

(2) 기세배

연회장의 중앙에서 만난 양편은 대기를 서로 숙여 기세배로 예를 표한후 본부석을 향해 인사를 한다.

(3) 마당놀이

양편의 대기가 뒤로 물러나면, 양쪽에서 서로 마당놀이를 펼친다.

마당 놀이를 펼치던 양편의 연희대는 구장 밖으로 나가 응원전을 펼친다.

(4) 시 구

촌장이 양편의 구기와 기녀가 열레 공을 땅에 놓으면 장채꾼들은 합성을 지르며 뛰어나오면서 경기가 시작된다.

(5) 장치기

촌장의 신호로 경기가 시작된다, 열레공은 곡식을 뜻하는 것으로 자기편 구문에 공을 넣어야 한다. 경기 중 반칙을 하는 선수는 촌장이 벌칙을 가하거나, 퇴장을 시킬 수도 있다.

(6) 기싸움

장치기가 끝나고 나면 양편의 구기를 선두로 중앙으로 나와 기싸움을 펼친다. 상대방의 대기에 올라가 평장목을 먼저 뽑은 팀이 승리한다.

이긴 편은 환호하고, 진편은 땅에 주저앉아 통곡한다. 기싸움에 지면 흥년이 든다고 해서 과거에는 이 기싸움을 할 때 부상자는 물론 사상자가 생기기도 하였다.

(7) 뒷풀이

기싸움이 끝나고 나면 전체의 연희대가 한데 어우러져 한바탕 흥겹게 춤을 추다가 대열을 정비하여 인사를 하고 퇴장한다.

3) 출연자 명단

• 발굴 및 고증

하주성(남, 45세)

• 연 출

유청자(여, 49세), 이종성(남, 45세)

• 지 도

이태규, 김현묵

• 농 악

정진태(남, 70세)외 30명

• 격 군

주명돈(남, 19세)외 23명

• 주민 및 기타

김정순(여, 46세)외 58명